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학의 선진형 무역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 은 식*
박 광 서**

-
- I. 서 론
 - II.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선진형 무역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 III. 우리나라의 무역전문인력 양성 현황
 - IV. 우리나라 대학의 선진형 무역전문인력 양성방안
 - V. 결 론
-

주제어 : 글로벌무역전문가, 무역전문인력, 선진형 무역전문인력,
실무형 교육, 인성, 컨버전스

I. 서 론

2009년도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다소 감소한

* HES(에이치이에스) 대표 (주저자)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6,86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수출은 세계교역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전하여 사상 처음으로 세계 9위권으로 도약하고 수출 시장점유율도 3.0%를 달성하는 등 국가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다. 한편으로 최근의 무역 흐름을 살펴보면 세계경제의 정보화와 글로벌화의 추세가 확대되고 개도국의 부상 등 한국의 전통적 수출입 상품에 대한 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무역 등 비전통적인 무역거래가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기술의 진보 및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술 그 자체보다는 전문 인력의 역량 및 학습능력이 과거보다 중시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핵심적인 경쟁원천이 물적자원에서 인적자원으로 이동하여 고부가가치형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한 기업이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무역환경은 WTO와 FTA로 대표되는 급속한 글로벌화, 신지역주의의 심화,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고 교역상품도 복잡화되고 있으며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무역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무역인력의 효과적 양성과 공급은 한국의 교역규모에 비해 미진한 실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위기 및 무역환경의 변화 등 국가발전의 핵심요소인 무역인력양성 선진화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학계, 산업계 및 정책기관 등에서 계속 이슈화되며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정보화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인적자원 개발은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무역인력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무역인력의 역량을 개선시켜야 하는 노력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및 기업의 니즈에 따른 선진형 무역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역인력 공급기지인 대학에서 산업계에서 원하는 선진형 무역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일조하는 데 있다.

II.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선진형 무역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1. 글로벌 무역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

선진형 무역인력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무역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지역주의가 심화됨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WTO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상이 부진함에 따라 최근 들어서 신지역주의 추세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0년 2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주요국 지역무역협정 추진 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보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2009년 세계 주요국들은 지역무역협정(RTA) 추진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으며 2009년 한 해 동안 적어도 16건의 RTA가 신규 발효 되었으며, 9건의 RTA가 협상이 타결, 12건의 RTA 협상이 개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올해 세계 주요국의 RTA 발효는 21건으로 지난해 16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고 협상 타결 또한 지난해 9건에 비해 6건 늘어난 15건으로 전망됐으며, 신규 협상 개시도 15건으로, 지난해 12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¹⁾

둘째, 신흥경제권과의 교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 BRICs와 Post BRICs²⁾가 경제개혁 및 개방을 통해 세계경제에 편입되면서 수출입흐름에 있어서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들 신흥경제권의 중요성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한국의 수출입구조나 정책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치중하던 무역의존도가 크게 감소하고 중국을 포함한 BRICs 등 신흥경제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셋째, 교역상품이 복잡·다양화되고 있다. 최근 서비스 무역, 기술무역의 확산 및 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른 퓨전제품의 등장 등으로 시장 간의 경계가 무

1) 한국무역협회 FTA포털(<http://fta.kita.net/>)

2) Post-BRICs :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공 및 터키 등

너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교역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된 것을 들 수 있다.

2. 무역업무 패턴의 변화

현재 국내외의 무역업무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선진형 무역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무역업무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달리 무역업무가 보편화되고 일반인의 해외경험 및 외국어 능력의 향상으로 과거와 같이 단순 수출입업무의 처리능력을 가진 무역인력의 차별성이 감소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흥경제권 지역에 대한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문화, 언어에 능통한 지역전문가는 부족한 실정이며, UAE 원전수주의 경우와 같이 과거와 달리 서비스, 기술, 소프트웨어 및 플랜트³⁾ 등 비상품무역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지식정보화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어 따라 오프라인 업무로 남아 있던 무역마케팅, 수출입 거래조건의 협상 등 무역업무 많은 부분이 전자무역을 처리되는 등 무역업무 전반에 걸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정보화 역량이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전자무역의 점진적인 확산은 또 다른 중요한 무역거래형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원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발달에 있으며, 그 결과 서류 없는 무역거래를 통하여 무역업체, 금융기관, 유관기관 모두에게 많은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기 때문에 전자무역거래 형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⁴⁾

3.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선진형 무역전문인력의 의의

최근 무역의 특징은 글로벌 생산 및 산업 내 무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플랜

3) 해외플랜트 수주실적이 2005년 158억 달러에서 2009년 463억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을 달성함에 따라 플랜트산업을 차세대 수출전략사업으로 육성키로 하였다.(지식경제부 '플랜트 산업, 차세대수출전략사업으로 육성' 보도자료 2010년 2월 23일)

4) 윤충원·유찬화 (2008), '무역학과(전공) 교과과정 운영상의 과제와 개선책' '국제상학 제23권 제3호' pp.160-161.

트수출 등 사회 인프라 수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전 세계적인 산업의 흐름을 선도해 나가는 지식기반 서비스 무역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무역인력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역시 전환될 수 밖에 없다. 무역인력의 패러다임에 대한 주요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은 한-미 FTA, 한-EU FTA 등 한국이 FTA 허브 국가를 지향하며 교역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인력이동과 산업구조 개편 등과 더불어 무역인력의 개념과 수급 상황을 단기 및 중장기적인 변화를 예상하였다.⁵⁾

둘째, 지식경제부(2009)는 과거에는 상품 수출입에 관한 실무처리에만 업무가 집중되었으며, 서비스·금융 등의 인력은 수출입업무를 단순히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단순한 상품 무역실무 담당인력에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무역, 기술무역 등 복합적이고 전문화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미래에는 외국어,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등 무역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지식을 보유하면서도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⁶⁾

무역인력의 개념은 전통적인 무역인력의 범위에 한정하기보다는 무역인력을 시대적 흐름과 역할에 따라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역인력의 범위를 기능, 산업, 지역, 경력별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능별 무역인력은 국제간에 상거래에 수반되는 제반 기능을 수행하는 무역인력으로서 전통적인 국제무역 상무영역이 대부분이며 통상 '실무인력'으로 분류되고 있다.

둘째, 산업별 무역인력은 국제간의 산업 내 무역을 수행하는 무역인력으로서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간 상거래 및 국제 생산 및 판매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셋째, 지역별 무역인력은 해외지역전문가를 뜻하며 무역의 거래상대국에 대한 경제, 문화, 환경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말한다. 이 때, 지역전문가는 수출입활동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특히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무역전문인력양성을 위한 中·長期 로드맵 수립에 관한 연구' p. 17.

6) 지식경제부(2009), '선진형 무역전문인력 양성·공급 방안(案)', p. 3.

요한 무역인력을 의미한다.⁷⁾

무역인력의 범위를 국내외 무역환경의 시기별 변화와 그에 따른 역할에 따라서 시점별로 구분할 수도 있다.

첫째, 무역이 상품 수출입에 집중되던 시기에 상품수출에 필요한 무역실무인력은 ‘과거 무역인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무역, 기술무역의 확산으로 단순 상품무역을 담당하는 인력에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입 영역이 서비스 무역, 기술무역 등 복합적이고 전문화된 영역으로 확장되어 복합적이고 전문화된 영역을 담당하는 무역실무인력을 ‘현재 무역인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무역인력은 수출입업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과거 무역인력의 능력을 보유한 인력을 말한다.

셋째, 미래 무역인력이다. ‘미래 무역인력’은 현재 무역인력의 영역이 확장된 개념으로서 광의의 무역인력이라 할 것이다. 기업의 활동범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게 됨에 따라 외국어 능력, 해외시장 지식, 무역실무 지식은 모든 직장인에게 필요하게 될 것이다. 생활무역인력이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보급 확대, 소규모 자영업의 증가 등으로 전 산업에 걸쳐 누구나 무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⁸⁾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경우에는 고부가가치형 무역인력의 확보와 이들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며 성장 동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무역환경과 무역인력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무역인력의 필요역량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선진형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고 지역화, 지식·정보화 등으로 급변함에 따라 과거 프로세스 중심의 실무지식에서 외국어, 상품 및 기술지식, 통상, 해외지역시장에 정통한 전문지식을 갖춘 고급 무역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전문인력의 역량을 갖춘 인력이 ‘선진형 무역전문인력’이라 할 수 있다.

7) 김학민·이호형(2009), ‘무역인력 성장경로와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4권 제4호, pp. 103-104.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전계보고서’ pp. 20-23.

요약컨대, ‘선진형 무역전문인력’이란 기본적인 무역실무능력과 함께 해외지역, 상품지식 및 기술 활용 능력,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고급화된 지식과 전문화된 능력을 갖추고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지역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식, 서비스, 기술교역의 확대, 무역업무의 정보화·융합화 및 복합무역의 확산에 대응하여 첨단 지식 및 기술무역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무역전문 인력을 말한다.⁹⁾

Ⅲ. 우리나라의 무역전문인력 양성 현황

1. 무역전문인력의 양적·질적 수급 현황

무역전문인력의 수급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시점의 무역인력의 현황을 파악할 뿐 아니라 무역인력의 실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무역인력이 필요로 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인력양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무역전문 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선진형 무역전문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¹⁰⁾

먼저, 무역전문 인력의 양적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교역규모의 증가, 기업수요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무역전문 인력의 수급은 중장기적으로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교역량의 지속적 증가, 경상계열의 입학생과 졸업생의 수, 무역관련 기업의 취업률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수요·공급을 도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보고서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2014년 이후 약 4,793명의 부족을 예상하였다.

9) 오원석·양정호·박세훈(2009), ‘무역전문인력 양성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pp. 5-7.

10) 오원석·양정호·박세훈(2009), 전계보고서, p. 26

〈표 1〉 향후 무역전문인력의 연평균 수급 추정

구분	2010년	2013년까지	2014년 이후
공급	22,652명	21,484명	20,644명
수요	25,023명	24,620명	25,437명
공급 부족	2,370명	3,135명	4,793명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전계 보고서,' p. 71. 재요약

다음으로 무역전문인력의 질적 수급 현황은 무역인력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알 수 있다. 무역전문인력이란 기업 내에서의 무역분야 활동인력이고 이들이 각자의 기업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기업들의 만족도를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 이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인력을 채용하고 이들에 대한 성과수준을 평가하고 있는 기업들은 〈표 2〉와 같이 무역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무역인력에 대한 기대수준과 인력을 채용한 후에 나타난 성과수준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평가했다.

〈표 2〉 무역인력 기대수준과 성과수준

기대역량	기대수준 (5점만점)	성과수준 (5점만점)	기대-성과 (5점만점)
무역실무에 대한 지식	3.20	2.69	0.51
커뮤니케이션 능력	3.79	2.92	0.87
글로벌 매너 및 네트워킹	3.51	2.88	0.63
제품/기술에 대한 지식	2.94	2.65	0.29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	3.19	2.78	0.41
갈등 조정 능력	3.26	2.77	0.49
외국어 능력	3.93	3.05	0.88
정보화 능력	3.86	3.26	0.60
리더십	3.36	2.87	0.49
평균	3.60	3.09	0.51

* 자료 : 김학민 · 이호형 · 이흥기(2008), '무역인력 역량의 기대 불일치에 관한 실증 연구'

무역인력의 전체적인 성과수준은 무역인력의 채용전 기대수준인 3.6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 3.09에 불과하여 0.51의 차이를 보였다. 전공분야에 대한 기대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외국어 능력 등은 심각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또한 글로벌 매너 및 네트워킹, 정보화 능력과 갈등 조정 능력, 리더십 능력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역인력이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역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기관의 무역학 교육 커리큘럼의 구성 등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무역인력의 능력은 <표 3>에서와 같이 외국어 능력, 무역실무, 제품지식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필요한 무역전문인력은 이론적인 측면보다 실용적인 측면인 외국어, 무역실무, 의사소통 등 현실적으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이론적인 교육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무역인력 양성관련 교육은 공급자 측을 고려한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는 무역전문인력의 실수요자인 기업의 니즈에 적합한 실무형 인재의 양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기업이 요구하는 무역전문인력 능력

	2000년	2002년	2007년
외국어 능력	39%	42%	57.2%
무역실무 지식	42%	30%	25.2%
제품 지식	17%	20%	15.2%
인터넷 활용 기술	1%	7%	0.5%
기 타	1%	1%	1.9%
합 계	100%	100%	100%

* 자료 : 한국무역협회(2007), '국내 수출기업의 무역인력현황 및 애로조사'

건국대학교 GTEP사업단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¹²⁾ 중 '무역학 전

11) 김학민 · 이호형 · 이흥기(2008), 전제논문, pp. 217-218

12) 설문명: 무역전문인력에 관한 설문조사, · 조사주체: 건국대학교 GTEP사업단 · 조사기간

공자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기업의 채용 담당자의 32%가 기업의 인재상과 불일치한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실무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의 부족, 이론중심으로 실무교육이 부족, 인성교육의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표 4〉 무역 전공자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

구분	외국어 교육 부족	이론중심으로 실무교육이 부족	인성교육 내용 부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 부족	기타
비율	38.5 %	30.7 %	15.4 %	7.7 %	7.7 %

* 자료: 건국대학교 GTEP사업단, 무역전문인력에 관한 설문조사

〈표 4〉를 통해서 기업은 외국어 교육과 무역실무 능력과 같은 실질적인 업무 능력과 더불어 급변하는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인성이 뛰어난 무역전문인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업 측에서는 52%의 신입사원에 대해서 1년 또는 그 이상의 재교육이 필요하고 41.8%의 신입사원에 대해서도 1개월의 현장실습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이들 신입사원들이 가진 전문무역인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증명한다. 이와 같이 기업이 요구하는 니즈와 실제 대학교육과정의 불일치로 입사 후 재교육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신입사원의 무역업무 적응력 현황

구분	비율
전면적인 재교육 필요	54명(12.8%)
1년 정도의 수습기간 필요	165명(39.2%)
1개월 정도의 현장실습 교육은 필요	178명(41.8%)
1주일 정도의 업무프로세스 교육만으로 충분	26명(7.2%)

* 자료 : 박광서·유광현(2008), '글로벌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합리적인 무역학 교과과정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37권, p334.

: 2009.09.14~09.25(10일간), · 조사대상 : 대기업 및 중소기업 (58개사), · 응답자 : 55명 (회수율 95%), · 조사방법 : 직접방문 및 이메일

최근 청년실업률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해외 인턴십과 해외 취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재외동포기업인 한상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대학 출신 직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경우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이유로 대학교의 교과과정이 이론중심에 그친다는 것과 새로운 지식에 대한 교과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과과정에 이론을 겸비한 실용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각 학문영역별로 세계적인 추세를 파악하여 선진지식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¹³⁾

<표 6> 한국대학의 전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분 야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국제경제, 국제경영 지식	0	2	2	6	0
국제법 지식	0	0	0	4	6
특정지역(중국, 일본 등) 관련 지식	0	2	4	2	2
컴퓨터활용능력분야	0	6	2	2	0
무역실무분야	0	0	2	8	0
외환관리분야	0	0	2	5	3
재무회계분야	0	0	4	4	2
마케팅분야	0	3	1	6	0
시장조사분석분야	0	2	6	2	0
외국어능력분야	0	0	3	5	2

* 자료 : 김영·유성용·현석원, 전개논문, pp. 135-150

2. 부문별 무역전문인력 양성 현황

주요 부문별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현재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내용이 시대적인 요구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효

13) 김영·유성용·현석원(2009), '해외 한상기업들의 국내 대학생 인턴십 수요 및 대학교육에 대한 니즈 연구' 경영교육논총 제56집, pp. 135-150.

과적인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개선방향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부문, 민간부문 및 정부부문의 무역전문인력 양성 현황을 살펴본다.

(1) 대학부문의 무역전문인력 양성 현황

대학부문의 무역전문인력 양성은 다양한 명칭을 가진 무역관련 학과에서 무역관련 교과과정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학의 무역관련 학과 설치 현황과 무역전문인력 교과과정 및 무역학 교과과정 개설 현황을 확인하여 대학부문의 무역전문인력 양성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국내 대학의 무역관련 학과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07개 대학 가운데 무역관련 전공 또는 학과가 개설된 대학 수는 93개로써 44.9%를 차지한다. 무역관련 학과의 명칭은 무역학전공 또는 무역학과 이외에도 국제통상학과 및 전공, 중국통상, 유통통상, 사이버무역, 국제무역물류, 무역경영, 무역유통,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학과 등으로 다양하다. 한국의 대학에서는 지난 1970년대 초 경제발전과정에서 무역학과를 설치하여 우수한 무역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아 왔으나 최근 그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1996년부터 교육개혁작업에 따른 학부제 실시 등의 영향으로 무역학과가 폐과되거나 경영학부, 경제학부, 국제통상학부 등 다양한 명칭의 학부로 편입 또는 통합되면서 학문적 독창성과 독자적인 발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대학들이 독립적인 무역학과의 운영을 포기함으로써 무역인력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중심으로 무역인력 양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원도 학부와 마찬가지로 무역관련 학과의 명칭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¹⁴⁾

다음으로, 국내 대학의 무역전문인력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무역학은 초기에 국가 간의 상품, 용역, 자본 거래를 포함한 국제상거래 현상을 실무적, 이론적, 정책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분야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초창기에는 무역상무분야, 무역이론 및 정책분야, 무역경영분야로 구분되었으며, 이후 국제무역환경

14) 오원석·양정호·박세훈(2009), 전계보고서, pp. 28-29.

의 변화에 따라 국제통상 분야, 지역학 연구분야 등이 새롭게 추가되게 되었다. 초창기 무역학과는 50년대 일본에서 무역실무를 전공한 교수가 중심인 무역상무 중심의 학과였다. 이후 무역학의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경제학과 경영학을 도입하여 무역학의 기본 교과과정으로 무역상무, 국제경제, 국제경영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¹⁵⁾

무역학과 교과과정 개설현황은 무역상무(36.5%), 국제경제(22.2%), 국제경영(19%) 순으로 무역상무를 중심으로 국제경제와 국제경영이 보조하는 무역학과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역학 교과과정 개설현황을 기준으로 무역상무분야 개설과목은 무역실무, 전자무역, 이론 및 정책, 기초교양 등 23개 과목으로 36.5%, 국제경영분야 개설과목은 경영, 통상 등 12개 과목으로 19%, 국제경제분야 개설과목은 경제·금융·외환 등 14개 과목으로 22.2%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실무 과목의 비중이 전체 교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며, 경제이론 및 국제경영 관련 교과목의 개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무역학 교과과정 개설 현황 (2006년 7월 기준)

	50개교 이상	40개교 이상	30개교 이상	20개교 이상	10개교 이상
개 설 과 목	국제무역론 무역영어 국제통상관계론 국제마케팅 국제운송물류론 국제금융론 국제경영학 무역실무 전자상거래 신용장(결제)론 통계분석 기타 (11개 과목)	전자무역론 경제학원론 거시경제학 외환관리론 해외경제 해상보험론 경제기타 무역정책론 국제경제학 무역환경 미시경제학 (11개 과목)	무역계약론 상사중재론 각국경제론 한국무역론 사이버무역 국제기업론 국제수학 국제재무관리론 경영학원론 시사영어 무역관계법 전자무역실습 무역상무 (13개 과목)	중국어 해외투자론 마케팅 컴퓨터기타 국제통상정책 현장실습 국제경영전략 디지털 통상협상론 유통학개론 해외시장조사론 관세법 (12개 과목)	회계원리 기업재무/회계 영문통상규범 경제통합론 국제경제기구 국제지역세미나 한국경제(통상) 무역정보론 국제산업 무역상품학 무역영어회화 무역관습론 국제금융시장론 국제경영사례 경제사 국제협상 (16개 과목)

15) 박광서·유광현, 전계논문, p. 338.

영역별 비중	무역상무 : 4	무역상무 : 3	무역상무 : 7	무역상무 : 5	무역상무 : 4
	국제경영 : 2	국제경영 : 0	국제경영 : 3	국제경영 : 3	국제경영 : 4
	국제경제 : 3	국제경제 : 6	국제경제 : 2	국제경제 : 0	국제경제 : 3
	국제통상 : 1	국제통상 : 1	국제통상 : 0	국제통상 : 2	국제통상 : 5
	지역학 : 0	지역학 : 1	지역학 : 1	지역학 : 1	지역학 : 0
	외국어 : 0	외국어 : 0	외국어 : 1	외국어 : 1	외국어 : 0

* 자료 : 오원석·양정호·박세훈, 전계 보고서, p. 30. 요약·정리

〈표 8〉 무역학 교과과정의 영역별 개설과목 수 및 비중

무역상무	국제경제	국제경영	국제통상	지역학	외국어
23(36.5%)	14(22.2%)	12(19%)	9(14.3%)	3(0.5%)	2(0.3%)

* 자료 : 오원석·양정호·박세훈, 전계보고서, p. 30에서 연구자 요약·정리

또한 변화하고 있는 무역환경에 발맞추어 전자무역 및 컴퓨터 관련 교과목 등이 개설되고, 외국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무역거래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영역에 대한 교과목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¹⁶⁾

(2) 민간부문의 무역전문인력 양성 현황

민간부문의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은 전문성을 가진 무역전문인력 교육기관과 각종 업종별 단체를 통한 무역전문교육,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전문인력 교육기관에는 한국무역협회(KITA)의 무역아카데미가 있다. 그 중에서 글로벌무역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으로 ‘무역마스터’과정이 주목된다.

무역마스터 과정은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에서 직접 운영하는 과정으로 전공과는 무관하게 대졸 이상의 미취업자 또는 실업자 및 대학생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무역실무, 국제금융전략, 해외마케팅, 외국어,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9개월 동안 총 1,800시간의 강도 높은 집중교육을 통해서 무역업계에서 필

16) 오원석·양정호·박세훈(2009), 전계보고서, pp. 29-30.

요로 하는 전천후 무역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무역업계의 니즈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무역업계와 무역관련 유관기관 출신의 강사진이 강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무위주의 무역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어 대기업을 비롯하여 무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망 수출중소기업으로 교육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

주요 교육과정 내용은 첫째, 무역실무, 국제금융 및 해외마케팅 교육을 들 수 있다. 국제비즈니스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들의 현실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초 이론, 실무연습, 무역실무 시뮬레이션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교육 및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부문에 대한 교육 강화로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자질 및 실력을 증진시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실전 비즈니스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일 3시간 이상씩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비즈니스 영어교육을 통해서 국제비즈니스의 기본인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시키고 일본어와 중국어의 제 2외국어를 선택하여 구사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고 있다.

셋째, 전자무역의 확산추세를 반영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인 1PC를 통한 OA고급기능, 바이어 DB검색, 전자무역실무교육, EDI 실무교육 등 시대흐름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국내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무역인의 기본자세, 매너, 직장예절 등 전문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가치관과 교양수준을 배가시키고 실천의지 강화를 위하여 해병대 입소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물류기지 현장방문, 해외 전시회 참관 등 수출입현장에 대한 직접 방문을 통해서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다섯째, 실질적인 해외마케팅 능력 제고를 위해서 IBI(International Business Incubator)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자질 및 실력증진을 도모하고 있다.¹⁷⁾

(3) 정부의 무역전문인력 양성 현황

정부의 대표적인 무역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사업에는 지식경제부의 글로벌

17)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마스터과정(<http://master.tradecampus.com/>)

무역전문가 해외인턴십 장기과정와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그리고 서울 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무역서포터즈 사업 등이 있다.

첫째, 글로벌 무역전문가 해외인턴십 과정이다. 이 과정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시행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선발하여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에서 무역실무과정을 교육 시킨 후 우리나라의 교역국 가운데 규모가 큰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은 물론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베트남, 터키, 브라질 등 신흥시장을 포함한 세계 각지로 인력을 파견해 연수를 실시한다.¹⁸⁾ 2010년 7월 현재 제4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장기과정과 단기과정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장기과정은 국내 사전교육 1개월과 해외 인턴십 6개월, 총 7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기과정은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인턴십 2개월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이다. GTEP(Global Trade Expert Incubating Program)은 지식경제부가 후원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진행하는 차세대 무역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이다. GTEP은 무역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출을 통해 무역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GTEP은 이론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학교육에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을 접목하여 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2~3학년 대학생이고 2개년 계획에 따라 무역실무와 현장교육을 실시하며 비즈니스 영어와 무역서식 및 용어에 대한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전체 18개월 동안 총 700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¹⁹⁾

GTEP사업은 사업목표를 첫째,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중심형 글로벌무역인력을 양성하고 둘째,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며, 셋째, 대학교육을 무역실무 및 현장중심교육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한다는 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사업은 표준교과과정 및 교재개발·보급, 무역전문가 인증제도 실시, 무역특성화 대학 지정 및 운영, 국내외 현장교육 실시 및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²⁰⁾

18)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http://www.tradecampus.com/>)

19) GTEP 홈페이지(<http://www.gtep.or.kr/>) 참고

GTEP를 수료한 대학생 중 우수한 요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여하는 글로벌 무역전문가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이 인증서를 위하여 학계, 산업계, 정부, 유관기관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가 기준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 무역전문가 인증서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인증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인증서 취득 프리미엄을 통한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증서에 대한 홍보를 기업에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요원들의 학습 의욕고취를 격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전시회, 인턴십 등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자금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무역서포터즈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09년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무역전문인력 양성제도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실력을 가진 젊은 인력을 서울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수출중소기업에 배치하여 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제도이다. 학생들에게는 무역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무역전문가로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여 진정한 무역전문가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200명 내외로 선발하며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을 준비 중인 서울소재 중소기업에서 6개월간 근무한다. 선발이 되면 3주 동안의 무역실무 교육을 받은 후 신청기업에 파견되며, 해외마케팅 지원업무, 수출입 관련 문서작성 및 통번역 업무를 지원한다.

무역서포터즈를 지원받은 기업이 무역서포터즈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로 매월 1백만 원을 4개월간 지원하는 등 무역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수출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2009년 무역서포터즈 운영결과에 따르면 무역서포터즈 중 총 31명이 서포터즈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¹⁾

20) 조현정, '지방대학의 국제통상학과 교육범위와 체계',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경영경제 제42집 1호, 2009, p217.

21) 서울특별시 무역서포터즈 (<http://www.spp.seoul.go.kr/>)

IV. 우리나라 대학의 선진형 무역전문인력 양성방안

글로벌 무역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 전자무역의 확산 및 무역패턴의 변화 등으로 무역인력의 역량도 과거 계약, 대금결제, 통관 등 1차적인 무역실무 능력에서 외국어 능력, IT기술 활용, 시장창출을 위한 창의적인 지식을 겸비한 능력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은 다소 이론중심, 전통적인 무역실무 중심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인력의 실수요자인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교육방식도 산업계의 니즈와 달리 대부분 교재를 통하거나 강의실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학문 분야와 같이 기업에 진출한 후 자체적인 재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다.²²⁾

기업의 우수한 인재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서 언급한 선진형 무역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역인력의 주된 공급원인 무역학과를 중심으로 기업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1. 무역학의 연구영역에 대한 조정

우리나라 대학에서 선진형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역학의 연구영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실수요자인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지 않는 인재양성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기업 니즈에 적합한 인재는 외국어와 무역실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인성도 요구된다.

첫째, 기존 수출입 거래선과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신규로 거래처를 발굴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신뢰관계를 유지·강화시켜 나가는 능력은 직장인으로서의 무역인력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신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열정이 요구된다.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이는 데에 제한이 있으므로 신규로 국내 거래처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처를 개발하여 회사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

22) 윤충원-유찬확, 전계논문, p181

질이 필요하다.

둘째,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료나 거래선과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리더십은 모든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무역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역 업무는 한 명의 개인의 업무가 아니라 사내 동료 또는 거래선의 담당자들과 긴밀하게 업무 협력을 통해 진행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때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다면 동료나 거래선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추진력도 부족해 업무 진행에 난항을 겪을 것이다.

외국어와 전문적인 실무지식을 겸비하고 이와 같은 인성적인 자질까지 겸비한다면 사내 동료와 국내를 비롯한 해외 거래선으로부터 커다란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와 비교해 보면 최근의 글로벌 기업들은 인성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인재상을 가지게 되어 창의력과 혁신성 등 리더십 역량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늘어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이제는 이론과 전공 중심의 대학교육에서 기업체 니즈에 부응하는 인성과 리더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커리큘럼에 반영하여 무역학의 연구 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다.

2. 무역학 분야의 컨버전스(convergence) 노력

무역학은 무역상무, 국제경제, 국제경영 및 마케팅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선진형 무역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역학과 역량만으로는 학문적, 재정적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역학 분야의 복합무역, 다시 말하면 컨버전스(convergence) 노력이 필요하다.

21세기는 지식, 문화, 정보, 기술 등 지금까지는 생산요소로 인식되어 왔던 유무형의 자원들이 모두 각각의 무역상품으로 자리 잡은 시대이다. 즉, 무역은 기존의 제품중심 수출입에서 발전하여 관광, 의료, 문화, 기술, 서비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복합무역(convergence trade) 방향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무역학과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무역학과에서는 기본 교육을 수행하는 한편 개별 특성화 방향에 적합한 인접학문 또는 관련학과 연계를 통한 방식으로 심화 교육을 실시하여 컨버전

스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컨버전스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특화된 역량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서 특성 있는 인재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역학의 컨버전스를 위하여 종합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 복합무역 전략에서 무역의 대상은 기존 상품무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기술·인력 등 생산요소까지를 모두 포괄한다. 과거의 상품무역시대에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가장 싸게 만들 수 있을 때 경쟁력을 갖게 되었지만 복합무역시대에는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더해 심리적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때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쟁력을 종합경쟁력이라고 할 때, 경쟁력의 원천도 과거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경쟁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서비스 정신, 독창성, 문화적 이해, 발전된 개인의 이미지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경쟁력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역학과의 커리큘럼 내에 관련 과정을 개설하여 효과적인 복합무역이 가능한 실무자를 배양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교육체계 수립

대학 내에서 선진형 무역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체계 수립과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관련 학과 교수들이 산업계의 요구를 분석하여 각 대학에 권장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대학교육이 수요자 지향적인 교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주기적으로 산업계의 요구를 분석하여 교육체계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산업계 실무진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의사소통을 통한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산업계의 요구를 경청하여 대학 당국에 전달하고 교육체계를 이에 알맞게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각 대학의 무역학과는 변화하는 산업계 동향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대학 무역학과의 경우, 이론중심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어 무역실무과목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산업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표 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신입사원의 무역업무 적응력

현황 조사에서 1년 정도의 수습기간 또는 전면적인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전체의 52%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산업계는 탄탄한 무역학 이론은 물론, 이에 더해 외국어 실력을 비롯한 무역실무에 대한 높은 지식과 능력, 인성적 자질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학과의 교육과정을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은 우리나라 대학이 급변하는 산업계의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각 대학 무역학과에서의 통일된 교육 내용 수립 또는 학문적 연대를 통한 각 대학 무역학과의 정체성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4. 우리나라 대학의 실무형 교수진 확충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무역학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을 감안할 때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전천후 비즈니스맨 양성을 목표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무역학과 교육체계에서는 현장 실무능력이 부족한 이론위주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무역회사에 입사한 후, 한국무역협회 등 산업현장에서 다시 재교육을 받는 이중적인 구조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무역학과 전공자들이 현장에서 실무능력을 기르고 선진형 무역전문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의 무역학과에서 실무형 교수진의 강의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요구와 학문적 필요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므로 산업계 측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직접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이처럼 실무형 교수진의 강의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지원도 늘어나야 한다. 현재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GTEP 등 외부 실무전문가의 교육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산상의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무역학과 전체 차원에서 실무체험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무형 교수진이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자체의 제도적

인 지원과 함께 정부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산학협력을 통하여 각 대학과 정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회사에 입사한 후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현업에서 활동하는 실무형 교수진을 확보해야 하고 실무형 교육을 이루기 위한 학교의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노력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과 지속적인 성장기반의 확보를 위해서는 뛰어난 무역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산업계, 정부, 대학, 학생 등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가 공감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국제무역환경은 더욱 글로벌화되고 기술의 변화속도도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개도국의 부상, 지역주의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단순 무역업무 처리능력만을 필요로 하던 무역인력이 아닌 '선진형 무역전문인력'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산업계에서 원하는 무역전문 인력을 잘 교육시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무역학이 더 이상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타 학문에 비해서 조금 더 차별화되고 시장의 니즈에 부합한 실용학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였다.

첫째, 글로벌 기업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더불어 열정적 창의성, 리더십 등의 인성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고 있다. 기존의 무역인력이 업무 중심적이라서 업무 능력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선진형 무역인력에게는 전문적인 업무 능력과 더불어 급변하는 무역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판단능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학 3~4학년 교과 과정 중에 인성과 리더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과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 교과과정이 산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체제가 구성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듯이 산업계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역학의 교과과정을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역학이 실용학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무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교수진이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실무형 교수진의 강의 확대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

참 고 문 헌

- 강원진, “미국에서의 국제상학의 연구동향과 한국에서의 연구방향”, 무역학회지, 제25권 제3호, 2000년 9월
- 김영·유성용·현석원, “해외 한상기업들의 국내 대학생 인턴십 수요 및 대학교육에 대한 니즈 연구”, 경영교육논총 제56집, 2009년 8월
- 김학민·이호형·이흥기, “무역인력 역량의 기대 불일치에 관한 실증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5호, 2008년 11월
- 김학민·이호형, “무역인력 성장경로와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4권 제4호, 2009년 8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전문인력양성을 위한 中·長期 로드맵 수립에 관한 연구”, 2008년 7월
- 박광서·유광현, “글로벌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합리적인 무역학 교과과정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37권, 2008년 2월
- 오원석·양정호·박세훈, “무역전문인력 양성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지식경제부, 2009년 10월
- 윤충원·유찬화, “무역학과(전공) 교과과정 운영상의 과제와 개선책”, 국제상학 제23권 제3호, 2008년 9월
- 조현정, “지방대학의 국제통상학과 교육범위와 체계(경쟁력과 차별화의 관점에서)”,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경영경제 제42집 1호, 2009
- 지식경제부,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선진 무역인프라 확충 전략”, 2009년 11월
- _____, “선진형 무역전문인력 양성·공급 방안(案)”, 2009년 8월
- 한국무역학회, “중소기업 전문무역인력의 효율적인 양성방안”, 2006년 6월
- _____, “21세기 한국 경제의 활로, 복합무역 전략”. 2005. 3
- _____, “국내 수출기업의 무역인력 현황 및 애로조사”, 2007. 7
- _____,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 현황”, 국제무역연구원, 2009.2
- _____, “2009년 무역평가 및 2010년 전망”, 국제무역연구원, 2009.12

서울특별시 무역 서포터즈 ⇨ <http://spp.seoul.go.kr>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 <http://www.tradecampus.com>

한국무역협회 마스터과정 ⇨ <http://master.tradecampus.com>

한국무역협회 FTA포털 ⇨ <http://fta.kita.net>

글로벌무역양성사업단(GTEP) ⇨ <http://www.gtep.or.kr/>

ABSTRACT

A Study on the Proposal for Training of Global Trade Expert of Korean University under Global Trade Environment

Han, Eun Sig

Park, Kwang So

Our country's sustainable trade growth fundamentally depends on the supply of excellent labors called global trade expert. He or she is required several knowledge and skills not only trade, marketing, information technology, foreign languages but also global mind. Universities have to supply excellent global trade expert to companies according to needs and wants.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propose some ideas for training of global trade expert of Korea university under global trade environment.

First, global companies prefer labors who have not only some skills about specialty and communication skill but also personality on passion, creativity, leadership and so on.

Second, The university's curriculum needs to improved in terms of "convergence" and "specialty". In nature, trade major treats lots of subjects such as trade, business administration, economics,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commerce, logistics, marketing, etc to catch up changing global business circumstances and companies' needs. Therefore convergence of adjacent field is very important in study and training.

Finally, Universities need to use field-specialist to supplement of trade working experience as instructors and practitioners. The concept of convergence and specialty is not separated but harmonious each other.

Key Words : Global Trade Expert Program, Curriculum of Trade and International Business, Personality, Convergence
